

광양시 ‘3년 연속’ 인구 증가… 비결은 인구정책

9일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살고 싶은 도시 인구정책 공유
광양시 골약동 5년새 5배 증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성과

광양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5만531명이었던 광양시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15만 3596명으로 3000여명 증가했다.

특히 광양시 골약동은 5년 전에 비해 약 5배의 인구가 늘어나 1만명을 돌파했다.

원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꼽힌다. 2021년 10월 첫 공동주택인 성향 푸르지오더퍼스트 아파트를 필두로 센트럴자이 아파트, 포스코더샵프리모 아파트, 푸르지오더센트럴아파트, 한라비발디센트럴마크 아파트, 더샵광양베이센트 아파트가 준공됐다.

광양시는 향후 구봉산 종합 관광단지,

구봉산 정상 체형형 조형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산업, 농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골약동이 광양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 인구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양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최진숙 순천제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정인화광양시장(위원장)의 주재로 ‘광양시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활동 결과로 도출된 정책 제안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회의 중 위원들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수요를 반영한 시책들을 계속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 제안들이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의 노력으로 발굴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될 수



광양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9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회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정책 제안을 세심하게 다듬어 광양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 덕분에 우리 광양시 인구는 2022년 1,637명이,

2023년에는 498명이 증가했고 올해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광양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긍정으로 평가하는 한편, “광양시를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주하는 도시, 모두가 들어와서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향후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역공동체 한마음 잔치 ‘성향’ 장흥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장흥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최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19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흥군 내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장흥중앙로터리클럽은 10명의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안전요원의 배치해 물놀이 프로그램, 다양한 스포츠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아동은 “다른 지역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해서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역응급의료기관 신규 지정 순천중앙병원

순천시는 지난 8일부터 순천중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환자분류소,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과 환자감시장치, 인공호흡기 등 전문장비 및 의사, 간호사 등 24시간 전담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에서는 원도심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여 왔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순천중앙병원은 새로 채용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등 의료진이 24시간 응급진료를 하게 된다.

순천지역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수는 연간 1만2100건으로 하루 평균 33명의 환자가 119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원도심 주민의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원도심 지역 응급환자 대처능력이 크게 개선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계와 함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군 조성면 달달다래 농장에서 열린 ‘팜파티’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키위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성황

보성군은 지난 9일 보성농업기술센터 주최로 조성면 달달다래 농장에서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팜파티’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

‘팜파티’란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의 농산물을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류 여건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팜파티의 주요 프로그램은 △키위를 활용한 음식 즐기기 △키위 피자 만들기 체험 △어린이용 전동카트 체험 △농산물 전시 상품 홍보 및 판매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홍보답례품 지급 이벤트 등이다.

전시 상품은 농장주와 팜파티 참여 농가가 함께 마련한 총 11종으로 구성됐으

며, 그중 키위비빔장, 키위오란다, 키위발효정 등 키위를 이용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도시민은 “농촌에서 직접 재배해서 키운 농산물로 만든 음식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추후 10~11월 중에 팜파티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구례군,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90억원 확보

구례군은 지난 7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 이어 8월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총 20개소로 전라남도에서는 구례군이 유일하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문화·복지·문화시설의 구례읍 권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폐교 위기의 면 단위 작은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구례군의 복합시설 대상 학교는 군의

중부권역에 위치한 광의초등학교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광의초등학교는 반경 1km 이내에 마을이 집중돼 있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교육 환경 조성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센터, 도서관, 평생학습관, 행복가족복합센터 등 복지·문화시설의 구례읍 권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폐교 위기의 면 단위 작은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주요 복합시설로는 거점형 돌봄 시설,

평생교육실, 지역 연계 마을도서관, 학생 안전 보살핌 공간(Day-care-space), 맞춤형 동아리방, AI 디지털 체험실, 공감 소통 커뮤니티 등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사업이 농촌 유학생들이 지역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확대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전 연령대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 모델을 구축하여 지방 소멸을 막는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례=김상현 기자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발송 고흥군, 내달 2일까지 납부

고흥군은 주민세 개인분 3만900건에 대한 3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만1000원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제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납부 마감일을 앞둔 29일, 30일과 내달 2일에는 저녁 9시까지 야간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화요일 운영되고 있는 야간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납부에 대해서 방문과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관내 아동과 ‘컵케이크 만들기’ 여수 지사협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귀준·송재열)는 지난 2, 6, 9일 세 차례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 아동 75명을 대상으로 ‘오감 만족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 활동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오감 만족 컵케이크 만들기’ 활동은 주민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정서 함양 및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사협 주관으로 추진됐다.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참여한 아이들이 직접 반죽한 재료로 컵케이크를 만들고 꾸미며 창의성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다”며 “작품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의 순수함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귀준 공공위원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뜻깊은 체험을 선사해준 지사협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동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전동 지사협은 ‘저소득 아동 체험 활동 지원 연합모금사업’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나만의 마카롱 만들기’ 체험을 추진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